

# 신화분석을 통해서 본 고대 중국의 祈雨풍속

— 홍수신화와 가뭄신화 —

김 현 자

> 차 례 <

- |                      |              |
|----------------------|--------------|
| I. 머리말               | 2. 홍수를 다스린 禹 |
| II. 홍수신화와 가뭄신화       | 3. 가뭄을 퇴치한 羿 |
| 1. 윤색된 역사인가, 순수 허구인가 | III. 맺는말     |

## I. 머리말

현대인들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대홍수와 폭염의 더위를 물질문명의 발달이 야기한 기상이변으로,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보복으로 간주한다.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의 시대를 살았던 고대 중국인들은 현대인들이 자연의 보복으로 여기는 홍수와 폭염을 민중의 삶을 핍박하는 잔혹한 폭정에 비유하였다.<sup>1)</sup> 농경사회에서의 홍수와 가뭄은,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보다는 비록 그 규모와 파괴력은 약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던 大亂으로 간주되어, 통치자들이 고심하여 그 대비책을 짜내어야 했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중국 고대전승은 堯, 舜 시대에 있었던 대 홍수와 가뭄사건을 이야기하면

\* 서울대 강사, 종교학

1) 桀의 폭정에서 핍박받던 夏나라 백성들에게 湯의 夏征伐은 큰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으며 (“民之望之 若大旱之望雨也”), 商나라 사람들을 紂의 폭정에서 구했다고 하는 周 武王의 商征伐은 홍수와 가뭄에서 백성을 구한 것에 비유되었다 (“求民於水火之中”). 『孟子』, 「滕文公章句下」.

서, 이 두 왕을 治水, 治阜에 성공한 聖君으로 칭송한다. 그런데 고대 문헌들은 이 홍수 및 가뭄사건에 대해 다소 상반된 증언을 한다. 한편으로는 堯帝 때의 대 홍수와 이를 다스린 禹의 무훈이 이야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堯帝 때의 엄청난 가뭄과 그의 신하 羿의 治阜 무훈, 그리고 순제 때의 대 홍수와 그의 신하 禹의 治水 무훈이 나란히 이야기되기도 한다. 게다가 羿는 때로는 堯의 신하로, 또 때로는 夏나라 太康 때의 窮나라 군주로 등장하기도 한다.

홍수와 가뭄은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자연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 고대 기록들을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홍수나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하여 이들 이야기들에서 堯, 舜 시대의 어떤 진실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고대 문헌이 드러내는 이러한 시대착오가 먼저 우리를 당혹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동일한 문제들에 부딪혔던 다른 지역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 관찰은 고대 기록들의 전통적 성격을 지적해 줄 것이다. 전통이란 알다시피, 세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영웅담, 지역 전설들, 풍속,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후세로 전해지면서 여러가지로 변형을 겪은, 말하자면 오랜 세월을 걸친 집단적 합의의 산물인, 통속적 답습물이다. 따라서 전통은 그 속성상 먼 과거, 현재, 먼 미래를 다 포괄하는 통시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인물이나 사건의 시대 착오는,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고대 문헌의 성격 자체를 말해 주므로,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禹가 九頭蛇의 괴물 相柳를 죽였다는, 또 羿가 열개의 태양을 쏘았다는 도저히 있음직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또 한번 난감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단지 홍수와 가뭄 퇴치의 상징적 표현에 불과한가?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 전달 또한, 사건 또는 인물들의 시대착오와 함께, 신화적 사고의 특성을 이룬다. 우리는 禹가 다스린 홍수이야기, 羿가 퇴치한 가뭄이야기를 신화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왜 신화적 사고는 동일인물을 다른 시대, 다른 내용의 신화 속에 재등장시키기를 물을 것이며, 괴물 상류를 죽이고, 열개의 해를 쏘았다는 황당해 보이는 신화의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를 물을 것이다. 禹의 治水신화, 羿의 治阜신화 분석은 바로 이 물음들에 답해 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의 여러 믿음, 사상, 관습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 II. 홍수신화와 가뭄신화

### 1. 윤색된 역사인가, 순수 허구인가

이것은 거의 모든 고대 사건들에 대해 제기되는 물음들이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문학적 허구인가? 기원전 6세기 이래로 이 물음을 제기했던 많은 논자들은 트로이 전쟁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는 문학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믿고 있었다. 그러나 1873년 독일인 쉘리만(Heinrich Schliemann, 1822-1890)의 트로이와 미케네의 옛 성터 발굴은 호머의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었을 개연성을 높이면서 유럽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유럽문명의 근저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여러 면모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유럽 주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나라 그리스의 국민들에게, 이 고고학적 쾌거는 그리스 조상들이 합심하여 오리엔트에 대항하여 획득한 그리스인들의 유럽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sup>2)</sup>

고대 신화의 배경이 된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일리아스』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일까? 아킬레우스(Achilleus), 아가멤논(Agamemnon), 헥토르(Hector), 파리스(Paris), 오디세우스(Odysseus)와 같은 『일리아스』의 영웅들은 실제로 기원 전 1250년 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되는 트로이전쟁의 영웅들이었을까? 호머 서사시의 형성과 소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일리아스』가 전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는 트로이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호머 서사시의 탄생과 그 소재에 관해 연구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둘로 나뉜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호머의 개인창작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직업 가인(歌人)들이 노래하던 짙막한 영웅 찬가들이 모여 시간이 지나면서

2) 그리스 도시국가들 세웠던 여러 왕조들의 혈통이 동방에서 유래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고대 그리스 신화들이 많이 있다. 『일리아스』가 꾸며진 순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엮어진 이야기라면, 이들 고대 신화들이 전해주는 왕조의 혈통 이야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리아스』는 이질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한데 뭉쳐 소아시아의 트로이왕국을 멸망시킨으로써 오리엔트와는 구별되는 그리스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과정을 묘사하는 전쟁서사시이다.

거대한 영웅 서사시들로 변모한, 오랜 세월에 걸친 그리스인의 집단적 창작이라는 설과,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쟁의 이야기가 시적 상상력이 뛰어난 호머라는 위대한 개인에 의해 완벽한 예술적 작품으로 되었다는 설이다. 그 어느 경우건 『일리아스』는 트로이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알맹이에 많은 문학적 허구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영웅들의 행적들, 지역 전설들이 첨가됨으로써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규모와 분량이 방대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sup>3)</sup> 요컨대 비록 『일리아스』가 트로이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핵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며, 또 주요 등장 인물들, 지역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줄거리, 인물들의 구체적 행위들이 실제의 트로이전쟁과 연관되어 역사적 진실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로이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으며, 또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서사시가 노래하는 사건의 줄거리, 영웅들의 행적들, 그들 간의 관계는 여러 지역의 영웅전설들이 오랜 기간 부단한 손질이 가해져 변형을 거친 것들이다, 기원 전 1250년 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로이전쟁과 거기서 활약했던 인물들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민족 영웅담을 연구한 신화학자들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한다. 인도의 민족 영웅 서사시 『마하바라타』를 심도있게 분석한 뒤메질(Georges Dumézil)은 이 서사시의 탄생과 주요 영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는 『마하바라타』의 주요 영웅들은 주요 신들과 몇몇 악마들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마하바라타』는 신화적 표상들의 거대체계가 인간세계로 전위된 것이다.<sup>4)</sup> 다음으로 『마하바라타』의 두 주요 부족 바라타 족(Bharta)과 꾸루족(Kuru)은 그 이전의 베다 문헌에서도 부족의 이름으로 등장하나, 이들의 행적은 달리 묘사된다. 또 『마하바라타』에서 파릭시트(Pariksit)는 바라타족의 일원으로 나타나지만, 『아타르나 베

3) Homer,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종로서적, 1982, 484-492쪽.

4) B.C 3세기-A.D 3세기 경에 걸쳐 편찬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마하바라타』의 주인공들은 베다 문헌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다. 『마하바라타』에서 주요 영웅들의 탄생은 베다 시대(B.C 12세기-B.C 6세기) 또는 그 이후의 신들 또는 악마들의 화신으로 간주된다. 또 영웅들의 행위들은 그들이 화신한 신들 또는 악마들의 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띤 것으로 나타난다. 뒤메질은 영웅들의 이러한 신적 속성의 구현과 신적 행위들의 모방을 전위(transposition)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Mythe et Épopée I*, Paris, Gallimard, 1986(5판, 초판, 1968) p.239.

다』는 그를 꾸루 왕국의 왕으로 신원을 밝히면서 그의 치세 동안의 평화와 번영을 찬미한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한 뒤메질은 이 인도 고대문헌이 진술하는 사건,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꾸루족, 바라타족은 베다 문헌에서도 부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꾸루족의 구성원들과 바라타족의 구성원들이 이들 부족의 실제인물이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화적 소재들이 인간의 사건들로 전위될 때 이 재료들은 연대, 지형, 인간의 민족지 속에 삽입될 수밖에 없다.”<sup>5)</sup>

엘리아데(Mircea Eliade) 또한 역사적 사건들이 엘리트에 의해서 또는 민중의 기억 속에서 신화적 윤색을 겪는 변형의 과정을 많은 구체적 예를 들면서 밝힌 바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마르코 크랄예비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14세기 후반 동안 그의 탁월한 용기로 이름을 떨치다가 1394년에 사망한 역사적 인물이다. 또 존 훈야디(John Hunyadi)는 1450년경 터키인들과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던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훈야디의 죽음 뒤 거의 200년이나 지난 뒤인 17세기의 서사시 형식의 발라드의 수사본(手寫本)들에서 이 두 영웅들은 함께, 동시대 인물들로 등장한다. 게다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르코 크랄예비치가 때로는 훈야디의 친구로서, 때로는 적으로서 활약한다는 점이다.<sup>6)</sup>

동일인물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상당한 편차를 지닌 사건으로 기술되거나, 동일 사건의 주인공이 다른 이름으로, 때로는 동일인물이 상반되는 행위를 하며 등장하기도 하는 사건 또는 인물들의 시대착오 혹은 비시간성. 이러한 현상은, 앞의 예에서 그리고 엘리아데가 열거하는 다른 많은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고대의 사건 또는 인물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의 대다수의 신화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신화학자들은 사건 또는 인물들의 시대착오 혹은 비시간성을 신화의 한 속성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신화적 사고는 한 인물을 여러 시대에 위치시키며, 여러 사건들과 연결짓는가? 신화학자들은 신화의 등장인물이 특정 시대, 특정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신화는 그 신화를 만들어 낸 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실재 또는 진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신화가 담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란 어떤 것인가? 머리가 아홉 달린 뱀 히드라를

5) Ibid, p.243.

6) Eliade, 『우주와 역사』, 정진홍 역, 58-78쪽.

죽인 헤라클레스 이야기처럼, 전혀 있음직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신화들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어떤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극적 재미와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또는 등장인물의 초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화적 상상력이 고안해 낸 과장된 표현일 뿐이냐?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도저히 있음직 하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냐?

“신화들은 그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과 단절되어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리스에서 신화들은 정치 조직이나 사회조직과 무관한, 의례나 법률, 관습들과 무관한 단순한 무연(無緣)의 극적 또는 서사적 창조물이 아니다. 신화의 역할은,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대는 것(justifier), 이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대사상들(grandes idées)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sup>7)</sup>라는 뒤메질(G. Dumézil)의 주장은 위의 여러 물음들에 동시에 답해준다. 우리는 앞으로의 신화분석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뒤메질의 위의 주장이 답해 주지 못했던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도 답할 것이다.

## 2. 홍수를 다스린 禹

“湯湯洪水方書，湯湯懷山襄陵，浩浩滔天。 넘실거리는 홍수가 널리 해를 끼치고, 출렁이는 큰 물결이 산을 휘감아 돌고 언덕을 잠기게 하며 질펀히 하늘을 흐르는구나.”<sup>8)</sup>

“當堯之時，天下未平，洪水橫流，汜濫於天下。草木暢茂，禽獸繁殖，五穀不登，禽獸傷人。獸蹄鳥跡之道，交於中國。 요(堯)임금 때에는 천하가 아직 평탄하지 못했던 때라, 홍수가 흘러 넘쳐 온 천하에 범람하였다.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번성하여서 곡식이 자랄 수 없었으며, 새와 짐승이 사람을 핍박하였다. 짐승의 발굽과 새의 발자취로 가득한 길들이 어지러이 나라 안을 교차하였다.”<sup>9)</sup>

“當堯之時，水逆行，汎濫於中國，蛇龍居之，民無所定。下者爲巢，上者爲窟。 요임금 때에 물이 역행하며 중국에 범람하였다. 뱀과 용이 그 곳에 살게 되니 백성들은 정확해 살 곳이 없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짓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집을 지었다.”<sup>10)</sup>

7) Georges Dumézil, op.cit., p.10. 이미지적 표현방식이라는 신화의 특성은 레비스트로소도 강조 지적한 바 있다. Claude Lévi-Strauss,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한길사, 1996, 71-74쪽.

8) 『書經』, 『堯典』.

9) 『孟子』, 『滕文公章句上』.

출렁이며 넘쳐흐르는 물은 천지를 금수(禽獸)의 천국으로, 뱀과 용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나무 위나 굴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곡식을 경작할 수도 없었다. 사납고 거친 존재들이 주름 잡는 야생의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경작 가능한 문명의 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야생의 동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禹는 뱀과 용을 제거하여 땅 속에서도 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홍수를 다스렸다고 한다.<sup>11)</sup>

『山海經』은 홍수를 일으키는 명사(鳴蛇)와 화사(化蛇)라는 뱀에 관해, 『左傳』은 홍수가 났을 때 못에서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용에 대해 이야기한다.<sup>12)</sup> 고대 중국인들에게 뱀과 용은 홍수를 야기하는, 자연질서의 교란자들이었다.<sup>13)</sup> 만일 고대 중국인들이 홍수라는 자연 재앙이 어떤 뱀이나 용들의 작란(作亂)으로 인해 생긴다고 믿었다면, 이러한 믿음은 뱀과 용을 처치하면 홍수는 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리라.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아주 자연스런 사고 — 그것이 주술적 사고이건, 과학적 사고이건 — 의 논리에서 나온다.

#### (1) 아홉개의 사람머리를 가진 뱀 相柳

신화전승은 물의 작란자(作亂者) 뱀과 용을 죽인 禹의 무훈을 드라마틱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준다.

“공공(共工)의 신하를 상류(相柳)씨라고 하는데, 아홉개의 머리로 아홉개의 산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상류가 이르는 곳은 모두 못이나 골짜기로 변한다. 禹가 상류를 죽였는데, 그 피가 비려서 오곡의 씨앗을 심을 수 없었다. 禹(禹)는 그것을 세 길이나 파서 묻었으나, 세번 다 무너졌으므로 여러 임금들의 누대(衆帝之臺)로 만들었다. 상류는 아홉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사람의 얼굴에 몸은 뱀으로 푸른빛이다. 감히 북쪽을 향하여 활을 쏘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 누대(共工之臺)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대는 그 동쪽에 있다. 누대는 네모졌으며 귀둥이마다 한 마리의 뱀이 있는데, 호랑이 무늬에 머리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sup>14)</sup>

“상요(相繇)라고 하는 共工의 신하가 있다. 아홉개의 머리에 뱀의 몸

10) 앞의 책, 「滕文公章句下」.

11) 같은 책.

12) 『中山經』; 『左傳』, 昭公 19년.

13) “水之怪曰龍, 罔象.” 『家語』, 5장.

14) 『山海經』, 「海外北經」.

으로 스스로를 휘감고 있으며, 아홉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가 토하는 곳과 머무는 곳은 즉시 늪이 되는데, (늪의 물이) 뱀지 않으면 또 쓰거나 해서 어떤 짐승들도 살 수가 없었다. 禹가 홍수를 메울 때 상요를 죽이자, 그의 피에서 비린내가 퍼져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 땅은 물이 많아 살 수가 없었다. 우(禹)가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세번 흙을 덮었으나 세번 다 무너져서, 결국 못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여러 임금들이 그곳에 누대를 만들었다(羣帝因是 以爲臺). 곤륜의 북쪽에 있다.”<sup>15)</sup>

자신의 몸으로 또아리를 틀어 물길을 방해하여 세상의 소통을 막는 아홉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악취를 내뿜으며 땅의 모든 산물을 유린하고 부패시키는 늪의 주인, 사람들은 그를 상류(相柳)라 부르기도 하고 상요(相繻)라 부르기도 한다. 아홉 땅의 산물을 모조리 먹어 치우는 괴물 相柳는 그 이름이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버드나무(柳)는 생명력이 강해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죽게 만든다. 버드나무의 이러한 속성을 잘 파악한 고대 중국인들은 柳를 불멸과 영원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sup>16)</sup> 그들은 죽은 조상들의 혼이 자신들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기원하며 상여를 버드나무 가지로 덮었다. 오늘날에도 버드나무 가지나 대나무 가지에 기를 매달아 이 기를 류장(柳旌) 또는 죽장(竹旌)이라 부른다. 상여 뒤에 꽂는 중국인들의 관습에서 우리는 그 옛날 관습의 잔존을 본다.

남방 7宿의 세번째 별자리 이름은 柳이다. 유수(柳宿)는 ‘하늘의 곳간(天庫)’ 또는 ‘하늘의 재상(天相)’이라고도 불렀다. 아마 버드나무의 탐식이 이러한 이름을 갖게했을 것이다.<sup>17)</sup> 중국인들은 이 柳宿가 천둥과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가지들이 휘뿌리는 비를 연상시켜서였을까,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물의 괴물 뱀을 연상시켜서였을까?<sup>18)</sup>

비를 뿌리며 땅의 모든 산물을 집어 삼키는 상류, 그러나 상류의 파괴적 몸짓은 일체의 무화(無化), 뿌리뽑기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 속에 이미 문명의 빛을 지니고 있다. 그는 아홉개의 인간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의 존재이다. 카르모스가 죽인 왕뱀의 이빨에서 생겨난 무사들이 카르모스를 도와 새 도시 테베를 건설하듯이, 우(禹)가 죽인 푸른 뱀 상류의 아홉 머리

15) 『大荒北經』.

16) Gustav Schlegel, *Uranographie chinoise* (星辰考原), Lcyde, E.J. Brill, 1875, pp.442-444.

17) “柳主飲食,倉庫醜之位,又名天庫”; “柳又名天相.” 『星經』, (재인용) Schlegel, p.445.

18) Ibid.



는 아홉 길들을 열어 혼돈의 중국 땅에 문명의 왕조를 창설한다. “...아홉 강물을 터서 바다로 이르게 하였고, 도랑과 운하를 깊이 파 강물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予九川距四海, 濬畎澮距川.”<sup>19)</sup>; “開九州, 通九道, 坡九澤 度九山. 아홉 주를 열어 아홉 길들을 서로 통하게 하였으며, 아홉 못의 제방을 쌓고 아홉 산을 측량하였다.”<sup>20)</sup>

禹의 치수(治水)사적은 구주 균정(九州 均定)의 사적과 뿔래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 전통이 堯의 시대(기원전 2375년-2258년으로 추정)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산을 휘감아 돌고 언덕을 잠기게 하며 하늘까지 질펀히 적시는 대 홍수가 연출하는 거대한 스펙터클의 인상이 이 자연 재앙을 자연스레 문명창조의 모티브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다듬어진 토지, 줄지어선 나무들, 모여있는 집들, 이어지는 거리들, 감싸안은 언덕들, 감돌며 흘러가는 강줄기들, 방향들. 넘실대는 검은 물은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린다. 모든 일상, 조상 대대로 눈에 익은 자연의 풍광마저 와해시켜 그 모습을 바꿔버리는 거대한 물, 그래서 우(禹)의 홍수 다스림은 자연스레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으로 이어졌으리라.

푸른 뱀의 몸을 가진 상류는 共工의 신하이다. 共工은 큰물을 움직여 공상(空桑)으로 흘러보내 천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sup>21)</sup> 共工, 相柳, 이들은 바로 중국문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禹가 퇴치해야만 했던 야생의 자연, 홍수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禹의 위대한 문명개시 무훈을 그들의 지명에도 새겨 넣어 후손들에게 기억시킨다. “禹攻共工國山”<sup>22)</sup>

홍수를 일으키는 뱀 또는 용이라는 자연질서 교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홍수의 원인이 되는 뱀이나 용을 제거한다는 주술적 인과론에 근거한 홍수 퇴치법, 아홉 주로 질서 있게 구분된 최초의 문명 왕조, 중국인들이 禹의 것으로 간주하는 치수(治水)와 구주 균정(九州 均定)의 사적, 신화가 표현하는 禹가 죽인 인면사신(人面蛇身)의 구두사(九頭蛇) 상류의 이미지는 이러한 여러 실들이 엮여져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신화는 禹가 홍수 괴물 상류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임금들의 누대라는 암시적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우

19) 『書經』, 「益稷」.

20) 『史記』, 「夏本記」.

21) 『淮南子』, 「本經訓」.

22) 『山海經』, 「大荒北經」.

리를 새로운 탐구의 길로 이끈다.

(2) 구릉으로 변한 못

『書經』은 禹의 작위를 백(伯)으로, 관직은 물과 땅을 평정하는(平水土) 사공(司空)으로 규정한다. 제방을 쌓고 수리하는 일, 도로를 개통하고 개천과 운하를 깊이 파 강으로 이끄는 일, 이러한 일들이 사공(司空)에게 맡겨진 임무였으며,<sup>23)</sup> 고대 전승들은 대체로 사공(司空)으로서의 禹의 사적들을 거론하며 그의 치수(治水) 무훈을 칭송한다. 『書經』의 「禹貢」篇, 그 중 특히 후반부는 禹가 행한 과학·기술적治水방식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sup>24)</sup>

대사공(大司空)으로서의 禹의治水무훈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홍수라는 자연의 파괴적 힘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해내었던 위대한 과학·기술적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그 문명창조를 위해 그들이 겪었던 가혹한 産苦에 대한 이야기이다.<sup>25)</sup>

그런데 신화전승은 엘리트 전통들이 누락시켰던 의례적 몸짓들의 흔적을 보존하여 보다 다양한 인간 활동을 집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여러 임금들의 누대와 관련된 고대 표상들은 물의 재난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식이 아닌 또 다른 적극적 대응방식이었던 고대의 한 풍속을 밝혀 주는 실마리이다.

고대 전통에서 북(鼓, 鐘)은 때로 물의 적대자로 나타난다. 한 신통기(神統記)에 의하면 鼓의 조상은 염제(炎帝)이다.<sup>26)</sup> 또 다른 한 계보는 그를 북의 산(鍾山)의 아들로 전한다. 그는 흠비와 함께 곤륜산의 남쪽에서 보강(葆江)을 죽였다.<sup>27)</sup> 이에 천제가 鍾山の 동쪽 요애에서 그를 죽였다. 鼓는 그 곳에

23) 『周禮』에는 사공(司空)이라는 관직명이 없으나, 『禮記』에는司空의 임무가 자세히 언급되어있다. “이달에는 천자가司空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바야흐로 시우(時雨)가 내릴 것이다. 물들이 범람하여 위로 넘쳐 흐를지도 모른다. 그대는 국읍(國邑)을 수행하고 원야를 돌보아, 제방을 수리하고 개천들을 잘 통하도록 하고 도로를 개통하여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라> 是月也 天水上騰, 循行國邑, 周視原野, 脩利隄防, 道達溝瀆, 開通道路, 毋有障塞”, 「月令」, 季春之月.

24) 사마천(司馬遷)이 「夏本記」에서 기록하는 대홍수 사건과 禹의治水사적은 『書經』의 「堯典」, 「益稷」의 일부와 「禹貢」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들이다.

25) “禹는 친히 스스로 삼태기와 보습을 들고 천하의 개울을 모아 큰 강으로 흐르게 했다. 그 때문에 장판지의 털이 다 없어지고 종아리의 털도 없어졌으며, 거센 바람을 감기우고 쏟아지는 비를 빗질하여 만국에 베풀었다.”고 墨子は 강조한다(『莊子』, 「天下」).

26) 『山海經』, 「海內經」.

서 준조로 변하였는데, 그가 나타나는 고을에는 큰 가뭄이 닥친다고 한다.<sup>28)</sup>

제대(帝臺)는 고종산(鼓鍾山)에서 백신(百神)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곤 하였다. 帝臺가 가지고 놀던 오색무늬의 매추리알 같은 돌(帝臺之石 또는 帝臺之棋)은 온갖 신들에게 기도드릴 때 사용하며, 이것을 복용하면 사악한 기운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sup>29)</sup>

江을 죽인 염제의 자손 북의 산(鼓鐘山), 북의 산에서 帝臺가 가지고 놀던 사악한 기운을 피하게 하는 돌. 얼핏보기에 재미로 꾸며낸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신화적 표상들에 역사적 진실의 알맹이를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가 있다. “壺涿氏掌除水蟲，以炮土之鼓敲之，以焚石投之. 호탁 씨는 수충 제거의 임무를 맡는다. 불에 달군 흙으로 만든 북을 쳐서 수충들을 몰아내고, 불타는 돌을 던진다.”; “若欲殺其神，則以牡槀午貫象齒而沈之，則其神死，淵爲殘. 그 (물의) 신들을 죽이고자 할 때는 숫 무고나무의 가지를 취해, 거기에 코끼리 이빨을 끼워 물 속에 가라앉히면 물의 신들은 죽고 그 못은 구렁으로 변한다.”<sup>30)</sup>

북을 치고 불타는 돌을 던져 물귀신이 죽고 숫 무고나무의 가지에 코끼리 이빨을 끼워 물 속에 가라앉혀 물의 신들을 죽이면 못은 구렁으로 변한다는 진술. 江을 죽인 염제의 자손 북의산(鼓鐘山), 이 산에서 帝臺가 가지고 놀던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오색 무늬의 돌. 홍수괴물 상류를 죽이고 세번이나 묻었으나 세번 다 허물어져 그 곳에 못을 만들어 못 임금들의 누대를 지었다는 이야기. 이들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담고있다. 북과 불타는 돌이 강한 불(火)의 힘으로 물을 제압하면, 음(陰)인 못은 마침내 양(陽)인 구렁으로 변한다.

북의 소리는 천둥이 울리는 소리이다.<sup>31)</sup> 황제가 그 가족으로 북을 만들었다는 외발 짐승 夔가 물 속을 드나들 때는, 늘 비바람이 일고 해와 달이 빛을 뿜어내며, 천둥소리가 들렸다고 한다.<sup>32)</sup> 鼓鍾山에서 帝臺가 못 신들과 함께 벌였던 잔치는, 북을 치며 분석(焚石)을 던져 작란(作亂)하는 물의 괴물들

27) 葆江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강을 덮다. 또는 숨기다'이다. 한 주석가는 보강을 泔江(江의 조상)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28) 위의 책, 「西山經」.

29) 위의 책, 「中山經」.

30) 『周禮』, 「春官」, 壺涿氏.

31) “雷震之聲，可以鼓鐘爲也.” 『淮南子』, 「本經訓」.

32) 『山海經』, 「西山經」.

을 처치함으로써 물난리를 다스리고자 했던 고대의 한 지우(止雨) 풍속을 말 하는 것은 아닐까?

상류신화의 누대 이미지를 고대의 止雨 풍속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山海經』의 한 지명, '우소적석지산(禹所積石之山), 우가 그곳에서 돌을 쌓은 산'의 유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된다. 『周禮』의 제사체계에 의하면 積은 불양(祓禳) 의례 중의 하나이다. 한 주석가는 積을 나뭇단을 불에 태우는 의식인 사(柴)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북을 치고 불타는 돌을 던져 물의 요괴들을 죽이면 못이 구렁으로 변한다는 풍속과 믿음이 禹所積石之山이라는 신화적 지명을 생겨나게 하지 않았을까.

물에 빠진 炎帝의 딸 정위(精衛)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역사적 진실의 알맹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까마귀 같은데 머리에 무늬가 있고 부리가 희며 발이 붉다. 이름을 정위라고 하며 그 울음은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새는 본래 염제의 어린 딸로 이름을 여왜(女娃)라고 하였다. 여왜는 동해에서 노닐다가 물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그리하여 정위가 되어 늘 서쪽 산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는 것이다.”<sup>33)</sup>

까마귀는 해를 실어 나르는 새이다.<sup>34)</sup> 염제의 딸 까마귀 정위가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는 이야기는 곧 불이 물을 제압하여 못을 구렁으로 만드는 이야기일 것이다.禹가 돌에서 태어났다는 탄생이야기,<sup>35)</sup> 정위 이야기, 이들 역시 같은 그루터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 3. 가뭄을 퇴치한 羿

역사 전승이 전해주는 예(羿)의 이야기는 왕권 찬탈의 반복되는 비극적 드라마이다. 羿는 夏왕조 태강(太康) 때 궁(窮)나라 군주였다. 태강은 정사는 소홀히 한 채 놀이만을 즐기며 돌아다녔다. 어느 날 태강이 낙수(洛水)의 기슭으로 사냥을 갔다. 사냥재미에 빠져 100일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지 않자, 羿가 왕위를 빼앗고 태강을 쫓아내었다고 『書經』은 전한다.<sup>36)</sup>

그런데 羿 또한 나라 일은 내팽개쳐 두고 자신의 궁술을 자랑하며 사냥에

33) 위의 책, 「北山經」.

34) 위의 책, 「大荒東經」.

35) “禹生於石”, 『淮南子』, 「脩務訓」.

36) 「五子之歌」.

만 몰두하여 돌아다니다가, 한(寒) 나라 군주 착(浞)에게 실패당하였다. 浞이 羿를 죽인 뒤 그를 삶아서 몸뚱이 고기를 羿의 아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자, 羿의 아들은 차마 자신의 아버지를 먹을 수가 없어 도읍의 성문에서 자살하였다. 浞의 탐욕은 부자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또 羿의 아내를 차지하여 아들 요(澆)와 희(豷)를 낳아, 澆는 과(過)나라에, 豷는 과(戈)나라에 거처하게 하였다. 후에 澆는 夏王 소강(少康)에게 豷는 저(杼)에게 죽임을 당한다. 『左傳』은 羿의 반란에서부터 夏왕 少康과 杼가 요와 희를 격파하여 窮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의 과정을 魏絳의 입을 빌려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준다.<sup>37)</sup>

극도의 패륜에 경악해서였는지, 아니면 줄줄이 이어지는 방탕과 패륜을 자신의 군주에게 일일이 다 고하는 것은 오히려 방탕함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해서였는지, 진(晉)나라 위강(魏絳)은 澆의 패륜을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지내는 형수 여가(女岐)를 취하여 즐기다가 자신의 목을 베러온 적에게 자신 대신 형수가 죽음을 당하게 한 무도한 澆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sup>38)</sup> 羿의 가문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들이 보여주는 패륜은 가히 오이디푸스 가문에서 일어나는 패륜들 못지 않다.

그러나 신화 전승 속에서 羿는 선신(善臣)으로 등장한다. “逮至堯之時 十日竝出 焦禾稼 殺草木 而民無所食 猥貳, 鑿齒, 九嬰, 大風, 封豨, 脩蛇皆爲民害. 堯乃使羿誅鑿齒於疇華之野, 殺九嬰於凶水之上. 繳大風於青邱之澤. 上射十日而下殺猥貳. 斷脩蛇於洞庭. 禽封豨於桑林. 萬民皆喜. 요임금 때가 되자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와 곡물을 태우고 초목을 죽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알유, 착치, 구멍, 대풍, 봉희, 수사가 모두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요는 곧 예를 시켜 착치를 수화의 들에서 죽이고, 구멍을 홍수에서 죽이며, 대풍을 청구의 못에서 격파하였다. 위로 열 개의 태양을 쏘고, 아래로 알유를 죽이며, 수사를 동정호에서 자르고, 봉희를 상림에서 사로잡았다. 이에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였다.”<sup>39)</sup>

이처럼 신화전승은 곡식과 초목을 불태운 열개의 태양과 괴물들을 제거하여 백성들을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堯 시대의 羿의 선공(善功)을 이야기

37) 襄公四年.

38) 『楚辭』, 「天問」.

39) 『淮南子』, 「本經訓」.

하고 있다.

고대문헌에서 상이한 시대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이라는 상반된 행적을 드러내는 인물이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하자, 이에 당황한 주석가들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두 인물로 구별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sup>40)</sup>

우리는 앞에서 등장인물의 시대착오 또는 비시간성을 신화의 속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신화적 인물은, 비록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인물 또 그와 관련된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달리 활약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존재이다.

『書經』의 내용들은, 그 세부사항들이 신화적 운색을 겪은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비록 『書經』과 『左傳』이 전하는 羿의 이야기 속에서 신화적 운색의 흔적이 감지되기는 하나, — 이 점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 중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羿는 역사적 인물로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다. 羿가 열개의 태양을 쏜 이야기가 중국인들의 신화적 사고가 역사적 인물인 羿를 차용하여 만들어 낸 가뭄신화라면, 우리는 堯 시대의 羿와 夏 太康 때의 羿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사족적 설명을 덧붙이는 대신,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신화적 사고는 다른 인물이 아닌 羿를 가뭄퇴치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였느냐? 열개의 태양을 쏘고, 알영, 착치, 봉화, 대풍, 수사를 죽였다는 신화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羿의 신화를 엮어낸 피록의 실태래들을 풀어헤쳐 그 실오라기들의 의미작용을 고대 중국인들의 삶 속에서 추적하여 이 물음들에 답하도록 하겠다. 전자에 대한 답변은 왜 신화적 인물이 역사 속에서 부단히 재탄생하느냐에 대한 한 설명이 될 것이며, 후자에 대한 해답 모색은 羿신화

40)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헤라클레스의 전설이 제기했던 난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이집트에서 조사를 하던 중, 헤로도토스는 그곳에서 헤라클레스 숭배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전하는 헤라클레스의 활동시대는 그리스인들의 전설적인 연대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니키아인들이 그들의 헤라클레스에게 부여했던 연대도 조사하였으나, 해결은커녕 점점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었다.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로도토스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헤라클레스를 아주 오래된 신으로 생각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두 다른 인물의 헤라클레스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폴 벤슨,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김지영 옮김, 숲, 1993, 72쪽.

가 담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名射手 羿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전승 속에서도, 신화전승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羿는 射手로 등장한다. 고대 중국인들이 射手에게 부여한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왜 가뭄이라는 자연재앙 추방자로 羿가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대 문헌 속에 보이는 射侯와 射天이라는 두 표현에 주목해 보자.

史馬遷은 商 武乙의 無道함을 보여주는 한 일화를 소개한다. 그 일화에 의하면, 무을은 大神의 우상을 만들어 우상과 도박을 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보게 하여 天神이 지게하고서는 天神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는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피를 가득 채워 공중에 높이 때달게 한 뒤, 이 가죽 주머니를 쏘고서 이를 射天이라 불렀다고 한다.<sup>41)</sup>

射侯란, 고대에 天子가 거행하는 활쏘기 대회를 일컫는 말로서, 이 명칭은 天子의 大射에서 궁술이 뛰어난 射手는 봉토를 부여받아 제후가 되었던 관례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sup>42)</sup>

전자는 天의 제거수단으로서, 후자는 제후 획득수단으로서 활과 화살의 두 용도를 알려준다. 제거수단과 획득수단이라는 활과 화살의 용도는 활쏘기를 사냥과 전쟁 외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주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문의 왼쪽에 뿔나무로 만든 활(桑弧)을 걸어 두었다. 탄생 후 3일이 지나면 문의 왼쪽에 걸어 두었던 뿔나무 활과 쏙대로 만든 화살(蓬矢) 6개로 천지 사방을 향해 쏘고 난 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조상들에게 아들의 탄생을 고하였다.<sup>43)</sup>

그라네(Marcel Granet)는 이 관습의 목적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부정의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과, 남아가 자라서 장차 통치할 땅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힘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다.<sup>44)</sup> 이미 확인한 제거수단과 획득수단이라는 활과 화살의 용도는 이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해준다.

41) 『史記』, 「殷本紀」.

42) 『禮記』, 「射義」.

43) 위의 책, 「內則」.

44) M. Granet, *Fêtes et Chansons anciennes de la Chine*(중국의 고대 축제와 민요), Paris, Albin Michel, 1982(초판, 1919), p.166.

『左傳』은 부정의 제거, 즉 정화의례로서의 활쏘기의 또 다른 구체적 예를 제시한다. 고대에는 얼음을 올날처럼 아무 때나 만들어 필요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겨울에 자연이 만들어 내는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연회와 상제(喪祭) 등의 경우에만 꺼내어 사용하였다. 얼음의 저장과 출고는 시기도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의례도 수반되었다. “其出之也, 桃弧棘矢以除其災. 얼음을 꺼낼 때는 복숭아나무의 가지로 만든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로 재앙의 기운을 털어 내었다.”고 한다.<sup>45)</sup>

桑弧와 蓬矢, 桃弧와 棘矢 등 활과 화살의 명칭도 다양하다. 재료의 차이가 용도의 다름을 함축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용도를 직접 알려주는 이름도 있다. 해를 구하는 활(求日之弓)과 달을 구하는 화살(求月之矢)이 그것이다. “庭氏掌射 國中之夭鳥. 若不見其鳥獸, 則以求日之弓與 求月之矢 夜射之. 정씨는 나라 안의 요사스러운 새를 쏘는 일을 담당한다. 만일 그 요사스러운 새와 짐승이 보이지 않으면, 해를 구하는 활과 달을 구하는 화살로써 밤에 그것들을 쏜다.”<sup>46)</sup>

庭氏의 업무에 대한 위의 진술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해·달과 연관된 재앙의 추방에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 재앙을 어떤 요사스러운 새와 짐승과 관련지어 생각했다는 점이다. 활과 화살들의 고대 용도에 대한 관찰과 함께 전자는 우리가 처음 제기했던 물음, 왜 하필 羿라는 인물이 가뭄퇴치의 영웅으로 신화 속에 등장하게 되었느냐에 답하게 해준다.

재앙 추방자라는 射手의 고대 기능이 가뭄극복의 무훈 이야기를 구성하는 신화적 사고에 어렵잖게 포착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냥을 통한 식량조달자라는 射手의 기능은 기근의 해결과도 잘 맞물린다. 나아가 과도한 태양의 화기(火氣)가 수기(水氣)를 고갈시키는 가뭄이라는 자연재앙이 요사스러운 어떤 새와 짐승과 연관되어있다고 믿었다면, 이는 괴력의 동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맹한 무사를 필요로 한다. 명사수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며, 궁(窮)나라 군주 羿는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 명사수로 각인 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고대 중국인들이 射手에게 부여한 다양한 기능은 羿에게 가뭄퇴치의 영웅뿐 아니라, 다른 기능의 영웅이 될 길을 열어 놓는다. 만일 신화적 사고가

45) 昭公四年. 서울의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이라는 동명은 얼음이 저장되었던 우리 나라 옛 지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대 관습의 편린들이다.

46) 『周禮』, 「秋官」, 庭氏.



가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재앙추방 이야기를 구상한다면, 쫓는 거기서 또 다시 영광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쫓 신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쫓가 처치한 여섯 존재들에 주목해보자.

(2) 머리 둘 달린 돼지 屏蓬

붕어처럼 생겼으나 돼지털이 나 있으며, 돼지소리를 내는 단어(鱗魚), 사람의 얼굴에 네개의 눈이 있으며 귀도 있는 올빼미 모양의 용(顛), 비유(肥遺)와 대사(大蛇)라는 뱀, 이들의 출현은 가뭄을 초래한다고 『山海經』은 말한다.<sup>47)</sup> 이 고대 신화서는 말하자면 해·달과 관련된 재앙을 유발하는 요사스런 새와 짐승의 구체적 명칭을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쫓가 제거한 괴물들 중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동물들도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수사(脩蛇)는 비유(肥遺), 대사(大蛇)처럼 큰 가뭄을 불러오는 뱀으로 볼 수 있다. 또 중국인들은 바람이 더위와 추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sup>48)</sup> 大風의 격되는 寒暑 조절의 실패에 대한 처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大風과 脩蛇의 의미는 쉽게 드러나나, 알유(猥諭), 구영(九嬰)의 의미는 아직 불투명하다. 알유(猥諭)의 경우는 고대에 이와 유사하게 발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알유(窶窶)가 신화전통 속에서 뱀 또는 용의 머리, 때로는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가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뭄과의 연관성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sup>49)</sup>

『山海經』에서 國으로 언급되는 공동체, 이들은 대개 『淮南子』가 말하는 해외의 36국에 들어가는데, 이 공동체들은, 그들의 특정 묘사로 미루어보건대, 특정지역에 우연히 모여 사는 단순한 주민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업공동체, 특정 풍속이나 기법들, 또는 비술(秘術)을 실행하는 집단과 같은 구성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句嬰 혹은 拘纒이 나라이름으로 거론되는 점으로 보아<sup>50)</sup>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유의미함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47) 『南山經』; 『北山經』.

48) “八門之風是節寒暑. 여덟 문의 바람은 추위의 더위를 조절한다.”, 『淮南子』, 『墜形訓』.

49) 『山海經』, 『海內南經』; 『海內西經』; 『海內經』.

50) 『淮南子』, 『墜形訓』; 『山海經』, 『海外北經』.

고대 천문체계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대인들의 삶의 편린들이 가득 담겨있다. 봉희(封豨)의 정체를 파악할 단서가 발견되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서방 백호의 첫번째 성좌는 규(奎)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 奎宿를 관찰하여 구름, 못, 강의 일들을 점쳤으며, 이 별자리가 전답 사이의 도랑(溝瀆)을 주관한다고 믿었다. 奎宿는 봉희(封豨), 봉시(封豕) 또는 ‘하늘 돼지의 눈(天豕目)’이라고도 불렸다.<sup>51)</sup> 왜 奎宿에 물과 돼지의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답 사이의 도랑을 주관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을까? 奎에 부여된 이러한 이미지와 역할은 고대 중국인들의 곡물과 초목의 경작 방식, 그리고 돼지 사육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奎宿는 가을의 시작을 알려주는 별이었다. 만물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맹춘(孟春)의 달 8월 초에 -- 오늘날의 9월 -- 석양과 함께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다가 8월 말에는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리는, 말하자면 가을이 펼쳐는 자연의 풍경과 리듬을 몸으로 살았던 별자리였다. 奎宿의 아래쪽에 횡으로 늘어서 있는 7개의 별은 외屏(外屏), 外屏의 남쪽에 있는 7개의 별은 천훈(天濶), 天濶의 서남쪽에 있는 한 별은 토사공(土司空)이라 불렸다.<sup>52)</sup> 天濶, 外屏, 土司空은 모두 奎宿와 삶을 같이 하였던 가을 별들이었다. 고대 천문서들은 天濶은 ‘돼지우리, 天濶豕豕之所’ 또는 ‘하늘의 측간, 天之厠也’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바깥 울타리’를 뜻하는 外屏은 天濶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53)</sup>

이상적 영웅의 무훈들, 신과 요정들 간의 아름다운, 또는 이루지 못한 비련의 사랑이야기들을 가득 담은, 그리스·로마인들이 붙였던 별자리 이름들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돼지우리’나 ‘하늘의 측간’이라는 별들의 이름은 사뭇 생경하고 또 비속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고대 중국인들에게, 못 별들로 반짝이는 천공은 인간의 낭만적 염원들이 투사된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선악·미추 모두를 아우르는 실생활이 반영된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 이름들은 역동적 생활세계의 소중한 흔적들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시간의 추이를 알려주는 자연의 징후들, 그리고 이와 화합하여 펼쳐지는

51) 『天官書』; 『天文志』; 『星經』. (재인용) Schlegel, p.320.

52) 『高厚蒙求』, 步天石歌; 『星經』. (재인용) Schlegel, pp.324-325.

53) 『天皇會通』; 『星經』, Ibid.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는 자료들로는 역서(曆書)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역서들은 한결같이 여름이 그 뜨거운 열기를 감추어 들이면서 가을 기운에 밀려나기 직전에 내렸던 큰 비를 언급한다. 중국인들은 이 비를 주부우(酒淚雨), 또는 인우(霖雨)라고 불렀다.<sup>54)</sup>

고대 중국인들은 태양의 열기로 달궈진 땅에 내린 비의 효능을 잘 파악하였으며, 또 이를 아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았다. “是月也, 土潤溽暑, 大雨時行. 燒雘行水, 利以殺草. 如以熱湯, 可以糞田疇, 可以美土疆. 이 달에는 땅 기운이 온택하여 젖고 더우며, 큰비가 때때로 내린다. 밭의 잡초를 베어서 불 태우면, 이미 불태운 땅에 비가 내려도 잡초는 다시 나지 않아서 잡초를 제거하기에 좋다. 날씨가 더워서 그 물이 열탕같으니, 그 풀을 태운 물과 흙으로 밭을 비배(肥培)할 수 있고, 흙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다.”<sup>55)</sup>

잡초를 태운 더운물이 진척거리리는 땅은 천연의 비료를 담백 머금은 비옥한 경작지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 습지의 땅을 놀려두고 다음 해 봄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습지를 텅굴기 좋아하는 돼지의 습관과, 이 습관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들을 아주 잘 간파하였다. 잡초를 태운 습지의 땅은 흙탕물을 텅기며 텅굴기 좋아하는 돼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이자 식량 공급지이다.<sup>56)</sup> 굳이 돼지우리를 따로 지어 먹이를 구해 공급할 필요도 없이 돼지들을 진흙탕의 습지에 풀어놓고 울타리를 쳐 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돼지는 그곳에서 먹고 누워 텅굴며 흙을 뒤집어 땅을 쟁기하여 부드러운 경작지를 만든다. 돼(豕)는 온몸으로 땅을 쟁기질하는 돼지의 습관에서 만들어진 말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자빠져 텅구는 돼지’인 언저(偃豬)는 낮은 습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sup>57)</sup> 또 저(豬)는 곡물 경작을 위한 저지대의 물 저장고를 가리키기도 하고,<sup>58)</sup> 돼지 사육장을 가리키기도 한다.<sup>59)</sup> 자연의 몸짓들에 무심한 채, 또 때로는 자연의 리듬을 거슬러 살기도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54) “大暑後十日, 大雨時” 『時訓解』; “七月雨日 酒淚雨” 『歲時記』; “時雨霖雨” 『夏小正』, 七月.

55) 『禮記』, 「月令」, 季夏之月.

56) “豕喜雨. 故天將久雨, 則進 涉水波” 『詩經』, 小雅傳; “八九月 放而少飼” 『致富奇書』, 養豬.

57) 『方傳』, 襄公 25年.

58) 『周禮』, 「地官」, 稻人.

59) “蓋豬豬所食食也” 『朝野僉載』, (재인용) Schlegel, p.320.

언저(偃豬)와 獮의 지시대상들이 기호와 다소 이질적으로 보여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그러나 위에서 관찰하였듯이, 고대인의 활동들은 자연의 여러 몸짓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하여 이 기호들의 지시대상들은 고대 중국인의 한 경작 방식과 가축 사육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제야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는 이제 가을을 알리는 奎宿가 돼지를 함축한 이름들—封豨, 封豨 또는 天豕目—을 갖게 된 까닭과, 奎宿 주위에서 그와 생을 같이하는 별자리들이 天淵, 外屏, 土司空이라 이름 붙여졌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만일 封豨가 생기질하여 부드러운 흙의 경작지를 준비하는 늑지의 돼지였다면, 스스로 식량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식량생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유익했던 돼지 封豨를 왜 쫓는 처치해야 했을까?

천공은 지상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기만 하는 돈단무심한 무생명의 거울은 아니었다. 그는 또 현재의 삶이 가져다 줄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인들은 奎宿를 관찰하여 구름·못·강의 일을 점쳤다. 또 土司空은 한 해의 화복(禍福)을 알고 있다고 믿었으며,<sup>60)</sup> 하늘의 돼지우리(天淵)를 가리는 바깥 울타리(外屏)가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여러 질병이 생긴다고 믿었다.<sup>61)</sup>

너무 많이 먹은 돼지가 쏟아내는 배설물은, 그것이 땅과 뒤섞여 좋은 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썩게 만들어 악취만을 뿜어낸다. 따라서 이런 돼지는 기근과 질병만을 가져다주므로 백성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山海經』은 머리 둘 달린 돼지 병봉(井封, 屏蓬)을 언급한다.<sup>62)</sup> 쫓가 처치한 封豨는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포식하는 돼지, 그가 쏟아내는 배설물은 경작지를 썩게 하고, 악취를 뿜어내어 기근과 질병을 야기하는 井封이 아닐까?

『詩經』의 詩들은 돼지들이 똥구는 습지들이 곡물경작지뿐 아니라 草木의 경작지로도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山有榛, 隰有稊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엔 감초”; “山有樞, 隰有粟 산에는 오미자나무, 진펄엔 느릅나무”; “隰桑有阿, 其葉有沃 진펄의 뽕나무 아름답고나, 윤기 반짝이는 아리따운 그 잎새”<sup>63)</sup> 쫓는

60) “土司空, 地官也, 主水土之事, 知歲禍福.” 『星經』, Ibid., p.325.

61) “外屏移徙不見, 民多疾.” 『星經』, Ibid., p.325.

62) 『海外西經』; 『大荒西經』.

63) 『邶風』, 簡兮; 『唐風』, 山有樞; 『小雅』, 隰桑.

桑林에서 봉희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屏蓬·封豨가 뿔구는 桑林은 과다한 배설물의 악취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잎과 뿌리가 썩어 말라 붙었을 것이다.

해(日)는 火氣의 精이며, 달(月)은 水氣의 精이다.<sup>64)</sup> 까마귀는 해를 실어 나르는 새이며,<sup>65)</sup> 기린이 다투면 일식·월식이 나타난다.<sup>66)</sup> 肥遺나 大蛇라는 뱀이 나타나면 큰 가뭄이 닥친다. 이러한 믿음들이 요사스런 새나 짐승을 환로 쏘아 해와 달을 구한다는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우리는 脩蛇, 알유 등의 의미를 이 믿음 체계 속에서 찾았다. 이 믿음들, 寒暑 조절자라는 중국인들이 바람에 부여한 기능, 그리고 기근·가뭄의 원인이나 결과로 인식되는 이들 요소들이 알유, 수사, 대풍, 봉희를 가뭄신화의 실타래들로 끌어들이었다.

하늘에 있는 열개의 태양은, 그들 중 하나만이 매일 부상(扶桑)의 가지 위로 올라와 차례로 운행하여 일순(一旬)이 지나는 규칙적인 해의 운행 리듬을 깨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태양의 반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 열개의 태양을 쏘았다는 이야기를 단순한 가뭄 극복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예는 어디에서 해를 쏘았고, 까마귀는 어디에서 깃을 떨어뜨렸는가?”라고 굴원이 노래하듯이,<sup>67)</sup> 射十日을 해의 제양을 초래한 요사스런 새의 제거로, 그리하여 수사, 알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두 설명 다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상징은 다의적(多義的)이다. 女丑尸와 黑齒國에 대한 『山海經』의 묘사는 또 다른 해석의 길을 열어준다. 예신화의 두 구성요소 주착치(誅鑿齒)와 사십일(射十日)의 의미 추적은 또 다른 한 고대관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상징의 다의성(多義性)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 (3) 열개의 태양을 쏘다

쫓겨 수화의 들판(疇華之野)에서 착치를 죽인 사건은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된다. “예와 착치가 수화의 들판에서 싸웠는데, 예가 그를 쏘아 죽였다. 곤륜허의 동쪽에 있다. 예는 활과 화살(弓矢)을 착치는 방패(盾)를 가졌다. 혹은 창(戈)이라고도 한다.”<sup>68)</sup> 앞에서 보았듯이 예를 죽인 인물은 寒나라 군주 착

64) 『淮南子』, 「天文訓」.

65) 『山海經』, 「大荒東經」.

66) 『淮南子』, <天文訓>.

67) “羿馬彈日, 烏烏解羽” 『楚辭』, 「天問」.

68) 『山海經』, 「海外南經」.

(泥)으로 알려져 있으며, 泥이 羿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희(羲)는 과(戈) 나라에 거처하였다고 한다.

羿가 방패 또는 창(戈)을 가진 鑿齒를 죽인 이야기, 과(戈) 나라를 다스렸던 희의 아버지 泥에게 죽음을 당한 羿의 이야기. 우리는 승리의 인물이 전도된 두 이야기에서 공히 작용하는 대립적 힘들을 볼 수 있다. 弓矢와 戈의 대립, 그리고 羿와 棼(鑿齒, 泥)의 대립. 또 泥 자체의 의미(적시다, 잠기다), 그가 다스린 나라 이름 寒(寒), 이 모두 물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적 인물 羿의 전기에도 신화적 요소들이 침투해 있음을 감지시켜 준다. 그런데 신화적 요소들과 역사적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 屈原(屈原)의 시<sup>69)</sup>는 羿가 河伯을 쏘았다고 노래한다.<sup>70)</sup> 이처럼 여러 곳에서 보이는 羿와 물의 적대가 鑿齒의 의미 추적의 단서를 제공한다.

흑치국(黑齒國)의 사람들은 이가 검고 벼와 뱀을 먹는다고 한다. 그들은 붉은 뱀 한마리와 푸른 뱀 한마리를 곁에 데리고 있으며, 흑치국의 북쪽에는 열개의 태양이 목욕을 하는 탕곡(湯谷)이 있다고 『山海經』은 전한다.<sup>71)</sup> 열 태양의 북쪽 또는 흑치국의 북쪽에는 몸빛이 검고, 양손에 뱀을 한 마리씩 잡고 있으며, 왼쪽 귀에는 푸른 뱀을, 오른쪽 귀에는 붉은 뱀을 달고 있는 우사첩(雨師妾)이 있다고 한다.<sup>72)</sup>

하무(河巫)라 불렸던 무당들은 해마다 임진(臨晉)에 가서 황하의 신들에게 제사지내는, 공적 의례를 담당했던 무당들이다. 이들 관 소속의 무당들 외에도 황하 유역의 군현(郡縣)들에는 老巫라 불리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열명 남짓의 제사자들이 모여 河神을 섬기는 무당 집단들이 많았다. 이 무당들이 해마다 행하는 젊은 처녀를 河神과 결혼시키는 인신공희 의식은 郡縣의 저명 인사들과 수천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축제였다고 한다.<sup>73)</sup> 이 의식에는 2-3백만 냥의 돈이 사용되었는데, 이 엄청난 양의 돈은 무당집단이 주민들에게서 모금하여 마련되었다고 한다.<sup>74)</sup>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시달

69) 『楚辭』, 「離騷」; 「天問」.

70) “胡射夫河伯, 而妻彼雒嬪. 이저 저 하백을 쏘아서, 저 낙빈을 아내로 삼았는가” 「天問」.

71) 「海外北經」.

72) 위의 책.

73) 『史記』, 「魏世家」; 「封禪書」.

74) M. Granet, *Dances et Légendes de la Chine ancienne*(고대 중국의 춤과 전설들), Paris, PUF, 1994(3판, 초판 1926), pp.474-475.

리지 않도록 때맞춰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며,<sup>75)</sup> 주민들은 河神을 섬기는 무당들에게 딸을 바치고 또 돈을 바쳤을 것이다.

北海의 神 禹疆은 푸른 뱀을 귀에 걸고 붉은 뱀을 발로 밟고 있으며,<sup>76)</sup> 검은색은 물의 색이다. 검은 이의 흑치국, 몸빛이 검은 雨師妾은 인신공회 의식을 거행하고, 祈雨祭에서 가뭄을 야기한 뱀이나 — 求雨祭의 경우 — 홍수를 불러온 뱀 — 止雨祭의 경우 — 을 제거하던 무당이었을 것임을 위의 관찰들이, 또 雨師妾이라는 이름 자체가 암시하고 있다. ‘이뱀 뚫린 흑치(鑿齒)는 영험함을 상실한 무당, 그래서 가뭄방지에 실패한 무당이거나, 가뭄종식에 성공하지 못한 무당이 아닐까?

흔히 暴巫라 불리는 고대 求雨祭에서의 무당 학대 관습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이다. 착치가 水神을 섬기는 무당을 가리킨다면, 다음의 女丑<sup>77)</sup> 이야기는 착치와 열개의 태양을 함께 暴巫 풍속과 관련하여 해석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女丑之尸，生而十日炙 殺之。在丈夫北，以右手鄭其面。十日居上，女丑居山之上。여축시를 산재로 열개의 태양이 구워 죽이고 있다. 장부의 북쪽에 있으며 오른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열 개의 태양이 공중에 떠 있고 여축은 산 위에 있다.”<sup>77)</sup>

暴巫 관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를 다른 길로 너무 멀리 이끌어 가므로, 여기서는 사십일(十日)이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暴巫 방식만 거론해 보자. 焚巫라는 표현, 그리고 고문자 학자들의 爇의 古形(爇)에 대한 해석<sup>78)</sup> 등에 의거해, 중국 주석가들은 暴巫를 무당을 햇볕에 쪼이거나 태워죽이는 의식이라고 설명한다.<sup>79)</sup> 무당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의식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잔인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무당을 햇볕에 쪼인다는 다소 완화된 暴巫 방식을 고안해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당을 햇볕에 쪼인다는 것은 어떻게

75) 고대 중국인들은 홍수나 가뭄, 전염병이 돌면 山川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山川之神，則水旱癘疫之災，於是乎禁之。”『左傳』，昭公元年。

76) 『山海經』，「大荒北經」。

77) 위의 책，「海外西經」。

78) 교의 고형을 ‘두 발을 끈 무당이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비를 비는 형상’이라 고 고문자학자들은 설명한다. 許進雄，『中國古代社會』，홍희역，동문선，599쪽。

79) 『左傳』，僖公 21년；『禮記』，「檀弓下」。

한다는 것인가? 武乙의 射天 에피소드와 재앙 추방술로서의 활쏘기가 보다 구체적인 暴巫 방식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열개의 태양이 女丑尸를 구워 죽이고 있다고 신화는 이야기한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앞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점을 다시 상기하자. 재앙추방 도구로서의 활과 화살, 그리고 가죽 주머니 속에 피를 가득 채워 이를 공중에 높이 매달아 화살로 쏜 뒤 이를 射天이라 불렀다는 武乙의 일화.

붉은 피가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는 불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해는天的 상징이다. 붉은 피가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 즉 天인 해를 쏘는 행위, 이것은 武乙 자신이 직접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속을 모방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 武乙의 이 일화를 후대인들이 지어낸 것이라면, 그들은 그 당시의 한 暴巫풍속을 武乙과 연결하여 꾸며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女丑尸 이야기는 붉은 피가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 열개를 무당의 머리 위 공중에 매달아 두고 이를 활로 쏘았던 고대의 暴巫 의식을 묘사한 것이며, 鑿齒를 벌하고 열 개의 태양을 쏘았다는 羿 신화의 내용은 이 暴巫 관습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 Ⅲ. 맺는말

治水를 위해 긴 세월 동안(13년 또는 9년) 헌신적으로 士空의 임무를 수행한 禹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문헌에서 주로 灌溉, 水路라는 과학, 기술적 홍수대책과 先公後私의 희생정신에 역점이 주어진다. 또 때로는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충신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한 堯와 舜의 用人術을 칭송하기 위해 羿의 治旱과 治水 공적이 원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홍수와 가뭄의 의미가 어찌 이것 뿐이겠는가. 계도적 의식을 가진 엘리트들은 홍수이야기와 가뭄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조상들이 이룩한 위업과 공덕을 후세에 전하고 싶어하지만, 신화적 의식은 잔혹한 군주의 폭정과도 같은 자연재앙 홍수와 가뭄으로 파괴된 민중의 아픈 삶을 전하고 싶어한다. 물길에 휩쓸려 가는 집과 가족들, 말라붙은 초목들, 황폐해진 경작지. 오랜 정성과 노고로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 일거에 와해되는 처참한 경험을 후손



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어하며, 일상의 소중한 삶을 되찾게 해준 구원의 영웅을 기억시키고 싶어한다. 신화적 의식에게는 그 재앙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으며, 누가,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그것을 물리쳤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홍수나 가뭄은 수시로 삶을 덮치는데, 그것이 堯帝 때의 사건이면 어떻게 舜帝 때의 사건이면 어떠냐. 자연의 잔인한 야수성이 원망스럽고, 유린된 생명들과 노고들이 억울하며, 그 야수들을 물리친 司罔과 射手가 고마울 뿐이지.'라는 민중의 외침이 신화적 의식을 괴롭힐 따름이다. 그리하여 신화적 의식은 홍수와 가뭄의 여러 의미를 짊어준 이야기 속에 다 담아내기 위해 상상력을 작동시킨다. 禹가 떠오르고, 相柳가, 焚石이, 鼓와 鐘이, 帝臺가 떠오른다. 羿가 떠오르고, 脩蛇, 屏蓬, 蓬矢, 封豕, 河伯, 黑齒, 寒凜이 떠오른다. 신화적 사고가 이 모두를 엮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羿의 가뭄신화이고, 禹의 홍수신화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禹신화와 羿신화를 구성하는 각 항들은 심리적 또는 역사적 과정의 우연적 부산물이 아니라는, 레비스트로스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홍수나 가뭄의 영향권에 있는 민중들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음을 보았다. 오늘날 환경사가들은 과학, 기술문명의 발달이 야기할 미래의 환경재난을 두려워하며, 과격으로서의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역사 현실의 대안이 되는 과거를 상상하고자 한다. 먼지 쌓인 구석에 내버려 둔 신화를 건져 올려, 그가 전달하는 과거인들의 삶과 만나는 일은 곧 대안이 되는 과거 상상의 한 방법임을 屏蓬이 알려준다.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바다의 신 용왕에게 희생물로 바쳐졌던 심청이, 장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용왕의 제물이 되기를 자청했던 심청의 효성은 자신과 아버지 두 사람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결과에 이른다. 『심청전』의 저자는 水神에게 바쳐졌던 고대의 人身供犧 풍속에 문학적 윤색을 가하여, 효의 실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라는 유가 사상을 강조하는 교훈적 이야기를 꾸며내었음을 또한 鱗齒는 알려준다.

수천명의 중국 군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양쯔강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 내려다 거대한 물길에 휩쓸려 폐죽음을 당한 1998년의 대홍수 사건. 민 훗날 중국 통차자들의 반인륜적 홍수대책이 민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때, 이 통한의 사건은 相柳가 이닌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괴물들의 투쟁이 불러 온 비탄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전해질까?